

NEWS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눈(雪)의 성모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성 마리아 국제의료센터 축복식 참석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 위치한 사회의료법인 눈(雪)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의 ‘눈의 성모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성마리아 국제의료센터 축복식’에 참

석하였다.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과 본 협회는 1988년부터 협정을 맺고 양국의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마리아병원의 국제의료서비스 및 선교에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위한 도전을 축하하기 위해 본 협회 담당주교인 우수일 주교와 천명훈 협회장, Sr.조계순 부회장 외 임원들, 병원대표인 황태곤 병원장, 김영훈 병원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의 초청으로 전 협회장이신 최영식 신부와 이동익 신부 그리고 전 사무총장인 정수교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축복식에 앞서 후쿠오카교구의 미야하라 료우지 주교와 보건사목담당 우수일 주교(한국천주교 군중교구장)의 주례로 한·일 양국의 11명의 사제가 함께 미사를 집전하였다. 이 자리에는 후쿠오카현의 사제·수도자는 물론 사회의료법인 눈의성모회와 교류를 진행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와 Georgetown University의 관계자분 등이 참석하여 성당 안을 가득 채웠다.

또한 성마리아병원의 입구에는 이 날을 기념하기위해 영

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최봉자 수녀가 제작을 하고 본 협회가 기증한 ‘눈의 성모상’의 축성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축하연에서는 참가해주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데 요시오 이사장이 3개 국어로 인사말을 전하였고,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감사로 천명훈 협회장이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신년하례 및 임원회의



1월 23일 협회 담당 주교님이신 우수일 주교님께 임원들의 신년하례식이 군중교구청에서 있었다.

이어 군중교구청 회의실에서 천명훈 협회장, 윤건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부회장 4명, 이사 및 감사 2명 총 9명이 참석하여 첫 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결산 보고와 2013년도 예산안 검토가 있었으며 2월 15일의 총회 전 준비를 논의하였다.

정기총회 개최



2013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정기총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2월 15일 개최되었다.



참석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임원, 회원병원 대표 (400명상 이상 : 대

표 2인 / 400명상 미만 : 대표 1인), 직능단체 각 대표 2인, 원목분과위원장 등 총 51명(위임장 26명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제25차

운영위원회 행사 ▲임원(이사) 보선 및 선출 ▲2014년도 세계병자의 날 장소 ▲정기세미나 주제 및 장소가 논의되었다.

제21차 세계 병자의 날 행사



본 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주관하는 제21차 세계 병자의 날 행사가 2월 15일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념미사, 기념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천명훈 협회장은 “의료 행위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환우와 의료인간의 사랑이 담긴 나눔이라는 것이 확인할 때, 환우와 의료인 모두 치유 행위 안에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모아지는 저희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우리 기도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세상 모든 환우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해 봅니다”라고 하셨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기념일인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제정하여 전 세계 국가에서 세계병자의 날 기념일을 지내고 있으나 올해는 구정 연휴 관계로 2월 15일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추가 내용 25페이지 참조

제21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 요약본(2013년 2월 11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2013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에 알퇴팅의 성모 순례지에서 거행하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모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의 위로의 말씀을 통

하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고립되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분명한 표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5-37 참조)이라는 모범적인 인물을 성찰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심신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날마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교부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서 아담, 곧 죄 때문에 상처입고 길 잃은 인류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고통에 다가가셨고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승에까지 내려가셨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신앙의 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사랑의 봉사를 강화하여 우리가 모두 이웃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회 역사에서, 병자들이 그들 고통에 담긴 인간적 영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수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곧 “사랑의 학문의 전문가”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병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가경자 루이지 노바레제, 세계 한센병자의 날 제정에 기여한 라울 폴레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돌보지 않는’ 사람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섬겼던 콜카타의 데레사 복자,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시킬 줄 아는 모범을 보여 준 민델슈테텐의 안나 세퍼 성녀를 생각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수난하시는 당신 아드님을 해골 터의 지고한 희생에 이르기까지 따르신 분으로 두드러집니다.

끝으로, 가톨릭 의료 기관과 시민 사회 그리고 교구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보건 사목에 종사하는 수도회, 그리고 보건 종사자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성모님께서 자비의 사도직에 종사하는 모든 이를 도우시어, 그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3년 1월 2일
교황 베네딕도 16세